

불자 세상보기



이강열 경기도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

죽음과 마주해 산다는 것은 고통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은 대지진에 이은 원전 사고로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고, 지금도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를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정연하고 의연한 모습에 모두가 감동했다. 뉴욕타임스는 인유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했을 정도이다. 한때 도쿄의 전철도 마비돼 집에 돌아갈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묵묵히 인내하는 모습에 성급행렬 또한 줄을 이었다.

지금껏 피해민들을 돕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구호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강화시킨 중학교 사회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실망감과 아쉬움이 교차한다. 공개될 10여 종의 교과서에

는 한국정부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명기되고, 독도 내용이 포함된 적 없었던 역사 교과서에도 일본땅으로 표기해 실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구호와 모금활동을 중단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격분하고 나섰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작년 한·일 강제병합 100년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데 대한 손해와 아픔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의 심정을 표명한다”고 했다. 또한 “당시 한국인의 뜻에 반해 이루어진 식민지 지배로 인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혔다”고 침탈의 강제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우익이었던 과거정권의 입장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어 놀란다. 나아가 우리가 일본정부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교과서는 교육기본법과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대학교수나 교사를 포함한 민간인으로 구성된 교과서 검정심의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객관적인 자료가 반영

냉정과 열정 사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놓고 뒷짐을 지고 있는 것에 닮아 있다. 일본 정부는 애국심과 전통, 국가주의를 토대에 둔 영토 인식에 있어서는 조금치도 변하지 않고 있다. 독도 문제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의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서 오히려 영유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일관해 왔고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번 중학교 교과서도 학습지도요령을 충실하게 따른 것에 불과하다.

올바른 역사인식이 한·일관계의 근간이 돼야 한다는 것에서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발표가 임박해지면서 한편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뉴스다. 공식발표 전임에도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를 개최하고, 예상 시나리오에 따른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공개적으로 일본 정부에 경고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용지배를 재확인,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독도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해양경비대의 지원을 위한 헬리콥터 이착륙장 보수공사 착수, 수송선 점안시설 확충, 문제교과서 채택 확산 저지를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치들은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일본의 독도 야욕이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쉬운 점은 그간 서로를 위해 발표시점을 늦추거나, 검정기준을 재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소망이었다. 기대와 희망은 오히려 강화된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나타난 것에 실망감이 컸지만 어쨌든 예견된 일이었다. 결국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인내를 갖고 대응해야하며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아야 한다. 한마디로 감정적인 대립이 아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냉철한 시각과 논리로 풀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에게 독도와 관련된 역사교육이 요청된다.

따라서 교과서 문제와 작금의 피해지역 지원은 달리해야 한다. 냉정한 분리 대응을 통해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 향후 독도를 비롯한 역사 문제에 있어서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도 국민들의 여론이 양분된 가운데서도 대지진 관련 추가 지원은 독도문제와 지진피해로 인한 인도적 지원과는 분리대응을 시사한 것이며, 바람직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社說

“그럴 줄 알았어”야 수행자

“MB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스님들이 많다. 수행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어느 찻집에서 들던 말이 아니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가 3월 30일 개최한 한국불교종흥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던 흥선 스님의 말이다.

스님의 발언은 뒷담화로 조잘대는 소리가 아닌 공식석상에서 최초로 언급된 사례이다. 스님의 출격대장부(出格大丈夫)다운 용기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이 같은 발언이 한국불교 종흥을 위한 담론을 주고받는 한국불교종흥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5대 결사 중 수행결사에 논의가 집중됐다. 수행이 5대 결사 중 가장 처음인 것은 스스로 닦고 행하지 않으면 자성과 성찰은 구

호에 그치지 때문이다. 무엇보다 불교는 이론이 아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머리로는 꿈꾸는 이상이나 아니라, 삶 속에서 오롯이 실천해야만 행복을 준다. 수행을 잘 해온 이는 지혜가 밝다. 경건(正見)이 생긴다. 상황 파악이 절로 된다. 선지식을 찾는 이유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럴 줄 알았다”는 소리는 오래 전부터 불교계가 듣고 해온 말 아니던가. 불교계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잘못해 온 업을 바로 고고, 그에게서 정당한 행위가 나오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가 최근 불교 및 승려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서 국민들은 스님들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사회활동역량(32.7%)보다는 수행역량(47.9%)을 꼽았다. 수행이 출가자의 본분사인 까닭이다. 수행에 불교의 미래가 달려있다.

“그럴 줄 알았다”면 비불자

MB선거캠프 고문 명단의 존재가 드러나자 불교계가 들썩였다.

명단에 이름 올린 스님들의 해명이 잇따랐다. 조계종 총무원 주장처럼 강하게 거부하지 못해 이름이 올라간 경우가 많았다. 몇몇 스님에게서는 직접 특정후보를 투표할 것을 권유한 사례도 확인됐다.

부처님 가르침은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서민을, 중생을 위한 대자대비한 가르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선택·잘못된 권유를 통해 괴로운 현실을 만들어 낸 당사자들은 참회해야 한다. 불가항력에 의한, 부지불식간의 결과였다해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한다.

그보다 더 큰 죄악이 있다. 명단의 존재가 공개되자 “그럴 줄 알았다”며

누군지 알 듯 말 듯 한 명단 속 스님들에게 보이지 않는 손가락질을 한 죄이다. 명단이 왜 문제되는지 남의일 보듯 흘려버린 이들도 마찬가지다.

부실(浮雪) 거사는 계승에서 “눈으로 본 바를 없이 해 분별을 없애고, 귀로는 소리 없음을 들어서 시비를 끊는다. 분별과 시비를 놓아 버리고, 다만 마음 속 부처님을 바라보고 스스로 귀의한다(目無所見無分別 耳聽無聲絶是非 分别是非都放下 但看心佛自歸依)”고 했다.

불자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내안의 부처님이지, 명단 속의 스님들이 아니다. 명단을 두고 “그럴 줄 알았다”고 말했다면 그는 이미 불자가 아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고 해도 법이 아니면 흘려보낼 수 있어야 불자이다.

사부대중 칼럼



정운 스님 조계종 교구이사

법회나 세미나 등 불교 관련 모든 행사 때에는 삼귀의를 제일 먼저 한다. 우리는 삼귀의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진리, 가르침을 보석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에 대해 반문해 보아야 한다.

한국과 같은 북방불교권인 티베트나 중국에서는 경전을 부처님과 똑같이 대한다. 티베트 사찰 법당 안에는 불상 주변에 수많은 경전들이 보자기에 싸여 모셔져 있고, 불자들은 부처님께 불전을 놓듯이 경전 앞에서 절하고 보시금을 놓는다.

중국은 사회주의를 오랫동안 고수했던 터라 불교가 퇴색한 면이 없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어느 사찰이나 장경루(藏經樓)라는 당우가 있다. 중국 근현대 선지식 중 한분인 허운 스님은 사찰을 불사하고 중수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장경루 불사였다. 허운 스님은 장경루 불사를 마치면 항상 그곳에 경전을 봉안했다. 20세기 초, 격변하는 중국의 험난한 상

황에서도 허운 스님은 일본·미얀마 등지를 직접 방문해 경전을 모시고 왔다. 스님은 경전을 모시는 날이면 항상 수계의식과 함께 불사를 행했다.

전세계 종교 가운데 신을 주재신으로 섬기지 않는 종교가 유일하게 불교일 것이다. 석가모니부처님도 열반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법(法)에 의지하라’고 누누이 말씀했다. 불교는 종교 이전에 진리를 주춧돌로 중심을 이룬 가르침이다. 부처는 곧 진리에서 나왔다. 진리를 통해 수많은 선지식이 나오기에 법은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법이다.

조계사 인근에 불 일이 있어 시내에 갈 때마다 주변 대형서점을 들르곤 한다. 어떤 책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들어가지만 서점에서 나올 때면 항상 돌덩이 하나가 마음에 얹혀 있다. 영풍문고만 하더라도 몇 년 사이 불교계 코너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나마 축소된 불교서적 코너에는 사주 등 역학 도서나 사머니즘적인 책들이 함께 비치돼 있다. 아마도 스님들을 무당의 사촌형제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반대로 기독교 책들은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책들은 손에 잡고 싶을 만큼 디자인

이 화려하다. 이런 이유로 직원에게 건의한 적이 있었다. 직원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불교 도서는 팔리지 않는데다 자리가 비좁아 더 이상 불교 책을 갖다 놓을 수 없다”고 답했다.

왜 이렇게까지 되어갈까? 진리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가 왜 계속 진리와 멀어져 가는 것일까? 스스로 자문해 보아도 답은 나오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집에 화제가 발생해 갑자기 피해야 할 경우,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은 돈이나 보석이나, 자성이 없다”라고 자식들에게 가르친다. 그들은 “여행 중에 좋은 책이 있으면 반드시 고향으로 가지고 와 고향사람들에게 들려주어라”라고 말한다. “만일 생활이 너무 가난해 물건을 팔아야 할 경우, 보석·집·땅을 팔되 끝까지 팔지 말아야 할 것은 책이다”이라는 속담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평생을 아끼며 읽은 책이 다 헐어 못 쓰게 될 경우, 그 책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장사까지 치루며 땅을 갈겨 파서 책을 묻는다고 한다. 유대인들은 이렇게까지도 책을 소중히 여기고 지식을 영혼으로 삼은 민족이기에 3000년을 자기 땅 없이 전세계를 떠돌고도 끝내 이스라엘 땅

스님은 무당 사촌이 아닙니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봐야 할 수 있는 비책(秘案)이 있다.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부록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고 싶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안내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고통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4 태어날 때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들을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7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9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예)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12 공양만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공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 책자 안내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4 팔개의 상징에 대한 설명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9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문자의 뜻 책자 선정 생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폍읍 문형 3리 704-12(생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벌코에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MSM Glucosid & Omega3 Cream 신제품 Global Omega Cream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벌코에이 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벌코에이 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관절에 정선에 계시는 토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관절염이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노(엘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백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글로벌코에이 크림을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아픈 치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 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답니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곽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사용하신 이들의 전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50,000원 금剛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